

‘효과적인 이야기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야기할머니와 유아 간의 공감능력 및 언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형숙¹, 홍명순², 김래은^{3*}

¹유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강사, ²대구가톨릭대학교 글쓰기말하기센터 겸임교수, ³유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조교수

The Effects of ‘Activity Program for Effective Storytelling’ on Empathic Ability and Language Teaching Efficacy of Story Grandmother

Hyung-Sook Kim¹, Myung-Soon Hong², Rae-Eun Kim^{3*}

¹Lecture, Division of Social Welfare & Counseling, U1 University

²Adjunct Professor, Writing Speaking Center, Daegu Catholic University

³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elfare & Counseling, U1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야기할머니와 유아 간의 공감능력 및 언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강원·수도권, 경상도권 이야기할머니 51명이었다. 연구도구는 이야기할머니와 유아간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전병성(2002)의 정서공감척도를 사용하였고, 언어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화, 이영애(2011)의 언어교수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은 2017년 3월 6일부터 7월 27일에 걸쳐 본 연구자에 의해 실시되었다. 자료분석은 두 변인의 사전-사후점수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적용 후의 이야기할머니와 유아 간의 인지적 공감능력 점수가 사전점수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적용 후의 이야기할머니의 개인효능감과 결과대효능감 등의 언어교수효능감 점수가 사전점수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은 이야기할머니들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언어교수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이야기할머니, 활동 프로그램, 공감능력, 언어교수효능감,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activity program for effective storytelling' on the empathic ability and language teaching efficacy of a story grandmother. The subjects were 51 beautiful story grandmothers in Gangwon, Gyeongsangdo and Seoul. The research tools used the emotional empathy scale of Jeon(2003), and language teaching efficacy scale of Kim and Lee(2011). As for the research procedure, from March 06 to July 27, 2017, an 'activity program for effective storytelling' was conducted. For data analysis, a t-test of the corresponding sample was conducted to fi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 and post-scores of the two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cognitive empathy ability between the story grandmother and the young children after applying the 'activity program for effective storytelling' was higher than that of the dictionary. Second, the language teaching efficacy between the story grandmother and the young children after applying the 'activity program for effective storytelling' was higher than that of the dictionary. Therefore, the 'activity program for effective storytelling' suggests that there is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cognitive empathic ability and language teaching efficacy of the story grandmothers.

Key Words : Story Grandmother, Activity Program, Empathic Ability, Language Teaching Efficacy, Effective Storytelling

*Corresponding Author : Rae-Eun Kim(versus486@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25, 2020

Revised December 3, 2020

Accepted December 20, 2020

Published December 28, 2020

1. 서론

21세기 다원화 사회에서는 노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구조형태가 변화되고 있다. 확대 가족 시절의 조부모들은 부모 대신 손자와 손녀의 기본적인 양육 및 예절교육과 인성지도에 직접 참여하였으나 핵가족화로 세대 간의 교류가 점차 약해지고 단절되고 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조기교육의 일반화 추세에 의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취원 시기가 빨라져 유아와 조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유아기는 인지, 정서, 사회 등 전인발달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경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1].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양육자를 포함한 조부모와 가족은 유아의 적절한 행동을 교육하고 문화적 가치를 습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노인과의 활동은 유아로 하여금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둘 간의 잦은 만남 및 소통의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다[2-5].

최근 유아와 조부모를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각 정부 부처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유아와 조부모의 세대 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8년도에 세대 간 지혜나눔사업 자료를 개발해 유치원을 대상으로 '세대 간 지혜나눔사업'과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사업'을 시행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세대통합 교육형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한국국학진흥원과 연계하여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옛날 가정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무릎에 앉혀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무릎교육을 현대에 맞게 구성한 것으로 한국정서가 담긴 전통 이야기를 통하여 옛 선현들의 지혜를 알리고 이야기 속에 녹아 있는 교훈을 되새기며 훌륭한 인성을 기르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활동이다[6]. 삶의 지혜가 풍부한 여성 어르신들을 '이야기할머니'로 선발·양성하여 우리 옛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유아교육기관 유아들에게 직접 들려줌으로써 미래세대의 인성함양과 전통문화의 세대 간 전승을 돕는다.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2009년도에 대구·경북권 할머니 30명이 2010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해서 강원·수도권, 전라·충청권 전역에 확대되어 2017년도에는 2480여명으로 전국지역의 7268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매년 아동문학가, 이야기할머니, 이야기할머니 지도강사, 유아교육기관 원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유아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주제의 선현미담, 우리 옛이야기, 전래이야기를 중심으로 적절한 이야기를 선정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에서 1년간 26~30편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유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초창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이야기할머니들이 단순히 이야기를 외워 유아교육기관의 유아에게 들려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유아교육 전문가와 달리 그들은 유아와의 공감 뿐만 아니라 소통에 있어서 원활한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후 이를 반영하여 2013년부터 도입, 전개, 마무리로 구성된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입·적용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이 적용되면서 이야기할머니들은 유아와 공감하며 원활한 상호작용 및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교수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야기할머니와 유아간의 공감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본 프로그램의 교수법과 과연 이야기할머니들의 언어능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는지 등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국내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이야기할머니들과 유아 간의 공감 능력이 향상되는지, 이야기할머니의 언어교수효능감이 계발되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공감이란 타인의 내적 경험의 주관적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마치 나의 것처럼' 느끼고 이해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것에 대해 적절한 감정을 타인과 나누는 것을 말한다[7,8]. 즉, 공감능력은 타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사고와 느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인지적 관점과 그때의 정서를 마치 자기 것으로 느끼는 것을 중요시하는 정서적 관점 모두를 고려한 통합적인 개념으로[8,9], 타인의 감정에 대해 공

유적, 대리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적 능력의 개입이 요청되므로 대리적 정서는 정서 감염보다 인지적으로 발전된 수준의 공감을 지칭한다[10].

유아들과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야기할머니들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방적인 사고로 유연하게 유아와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특히, 이야기할머니들이 언어적인 요소와 어조, 눈빛, 표정, 몸짓 등의 비언어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이야기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해 이야기 속에 녹아 있는 심미적인 교훈을 일깨워주고, 유아들도 자기 동일시를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와 공감하게 된다. 유아들의 적극적인 공감은 이야기할머니들에게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및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이야기할머니들은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받아 유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이야기나누기 활동 시 유아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상호작용 교수법을 습득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은 이야기할머니와 유아 간의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아와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교수효능감을 들 수 있다. 교수효능감이란 유아들과의 학습 활동에서 교사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유아의 능력증진에 대해 질적인 환경과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11]. 교수효능감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12-14], 교사가 학습자의 성취 결과에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15], 특히 본 프로그램은 이야기할머니들의 언어교수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야기할머니의 이야기 전달능력과 언어교수효능감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16]에 따르면, 유아와 상호작용에 있어서 언어교수효능감과 이야기 전달능력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는 능력은 언어교수효능감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야기 전달능력에 관한 연구로 유아와의 풍부한 상호작용의 필요성에 따른 좀 더 폭넓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16]. 따라서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야기할머니의 언

어교수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본 연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수업의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유아들을 집중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17]. 또한, 이야기할머니의 이야기 전달능력과 언어교수효능감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이야기할머니의 활동에서 풍부한 상호작용을 위해 이야기 전달능력과 언어교수효능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16]. 언어교수효능감이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이야기할머니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다.

이야기할머니 대상의 활동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국학진흥원의 이야기할머니를 대상으로 세대통합을 위한 이야기 문화 연구[18]를 포함하여,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중심으로 한 실버세대가 참여한 스토리텔링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와 영향을 분석한 연구[19] 등이 있다. 또한, 세대 간 통합교육인 이야기할머니 활동 및 놀이 활동이 유아의 인성과 노인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을 증명한 연구[20, 21]. 그 외 이야기할머니 활동이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유아의 서번트 리더십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22] 등이 있다. 또한, 효, 보은, 선행, 지혜, 나라 사랑, 우애, 신의, 검소, 감사 등을 토대로 옛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은 유아들과의 세대통합 활동에 있어 매우 효과적임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

최근 이야기할머니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노인과 아동의 상호작용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옛이야기 들려주기를 가장 우선으로 뽑고 있으며, 옛이야기꾼으로서의 노인자원봉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23,4]. 또한, 옛이야기 들려주기는 노인세대가 가진 삶의 노하우를 후속세대에게 해주는 좋은 매체가 된다고 하여 옛이야기가 갖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24].

특히,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의 옛이야기 들려주기 활동의 실제와 의미를 탐색 한 연구에서는 옛이야기 들려주기 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유아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긍정적인 방향의 옛이야기 전달과 공유 방식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하였다[25].

이처럼 이야기할머니에 대한 연구는 유아의 인성과

노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스토리텔링 교육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이야기 전달능력에 대한 언어교수효능감, 노인에 대한 인식과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옛이야기꾼으로서의 노인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세대통합에 관한 연구 등 이야기할머니 활동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아닌 순수한 할머니로서 유아들과의 구체적 상호작용방법과 유아와의 공감을 위한 연구는 미비하다. 지금까지 연구된 논문은 이야기할머니들의 이야기 전달능력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공감부분과 전체 활동에 따른 언어교수효능감이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선행 연구였다[16]. 신규 이야기할머니들의 공감능력과 언어교수효능감을 이끌어 내는데 따른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변화를 살펴보는 첫 연구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 사업’ 즉, 유아교육전문가가 아닌 할머니들이 유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돕고자 만들어진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야기할머니와 유아간의 공감능력 및 이야기할머니의 언어교수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야기할머니와 유아 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야기할머니의 언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인 8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지원할 당시 기준으로 만 56세(당해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만 70세(당해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사이의 여성 어르신,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재외국민, 정확한 언어 구사능력을 갖춘 분, 자원봉사자로서의 의지와 사

명감이 높은 분, 이야기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은 분, 건강이 양호한 분으로 이전의 교육현장에서의 교육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 활동을 충실하게 하실 할머니를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이야기할머니로서의 자애로운 품성과 어른으로서의 경륜을 갖추고 미래세대의 인성함양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진 분들이 우선 선발된다. 8기 이야기할머니들의 양성교육 과정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2박 3일 합숙교육을 통해 이야기할머니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자원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 교육의 신규교육이 있다. 신규 8기 이야기할머니들을 위한 월례교육을 각 강원·수도권, 전라·충청권, 경상권 등 권역별 교육장에서 6개월 동안 월 1회 1일 시행되었다. 이야기할머니에 선발된 할머니들은 선발된 당해 연도에 이야기 외우기와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배운다. 6회기 신규양성교육 이후 출석률과 이야기 구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현장 활동 자격 부여가 결정된다. 다양한 이야기에 따른 활용방법은 이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진행된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들의 상반기 현장 활동 사전교육은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각 권역별로 1일 4시간 동안 13편의 이야기를 교육을 받았다. 이야기할머니들이 4월부터 유아교육현장에서 13주간의 이야기 활동을 마친 후, 하반기 현장 활동 사전교육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7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상반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도입, 전개, 마무리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이야기할머니들과 같이 읽기도 하고 모의 수업을 통해 현장에서의 돌발 상황들을 연출해서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였다. 즉, 이야기의 세부적인 활동설계를 위한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인 교육계획안은 이야기할머니 수료 후 현장 활동에 파견되기 전 사전교육에서 이루어졌다.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의 유아교육 기관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을 처음으로 하실 8기 이야기할머니 228명 중 무작위로 51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면접을 통해 선발된 신규 이야기할머니들에게 한 달에 1번, 6개월 동안 월례교육을

실시한다. 월례교육에서는 이야기 외우기와 이야기 기법을 다루는데, 이야기 기법만을 배운 이야기할머니들은 유아교육 기관에서 20분의 이야기 활동시간 동안에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연할 수 있다. 더구나, 6~7분의 이야기를 전달한 후 나머지 13~14분간의 사후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야기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옛이야기와 선현 미담은 이야기에 따라 유아들이 다소 지루해하기도 하는데, 이야기 전달능력도 중요할 수 있지만 유아들의 흥미와 집중력을 높기 위해 20분 동안 활동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유아교육 기관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당해 연도에 각 이야기 차시에 따른 사전교육으로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인 교육계획안에 대한 교수법을 습득하게 하였다. 즉, 각 이야기 차시에 따른 교육계획안을 구성하고 유아와의 상호작용방법과 세부적인 발문법을 교육하였으며,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인 교재를 바탕으로 상반기는 각 권역별로 해당 지역에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는 1박 2일 동안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진행하였다.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은 Table 1과 같이, 절기 및 기념일을 참고하여 한국국학진흥원의 이야기로 통하다 1, 2, 3, 4와 전래동화 등에 나오는 느티나무 총각, 정신없는 도깨비, 우리나라 최초의 화학 발명이 최무선 등 상반기 13편의 이야기를 선정했다[26-29]. 특히, 선현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선현 미담은 일반 공모를 통해 제보된 선현들의 귀감이 되는 일화와 미담을 유아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기획된 유아 인성교육용 이야기 교재이다. 선현들의 미담을 통해 모범적인 삶의 행적을 자연스럽게 본받아 바람직한 인성과 덕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인 교육계획안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도입, 전개, 마무리로 진행이 된다. 도입 부분은 이야기할머니가 유아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를 회상한 후에 오늘 들려줄 이야기의 주제에 맞게 유아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소재의 상호작용과 손유희로 시작한다. 전개 부분에서는 이야기할머니가 구연으로 실감나게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2장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할머니의 질문에 유아의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질문은 그림과 이야기 내용을 고려하여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 중심형 질문과 사고의 확장을 위한 사고력 질문으로 발문한다. 발문은 유아들과 쉽게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이끌며 이야기할머니와 유아가 서로 공감하며 소통을 하도록 돕는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유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의 핵심과 주제 전달을 간결하게 하면서 마침 손유희로 상호작용을 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파견된 이야기할머니는 각 반에서 대략 20분정도 한 편의 이야기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상반기에 총 13편의 이야기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 활동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이야기할머니의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Beautiful story Grandma's story program

	term		remarks	source
	month	date		
1	4	3-7	Young zelkova	traditional stories
2		10-14	Distracted goblin	traditional stories
3		17-21	The first inventor of gunpowder in Korea, Moosun Choi	Go through the story 4
4		24-28	Lee Soon Shin, who defeated the force with water and reef	Go through the story 4
5	5	1-5	Bear catch story	traditional stories
6		8-12	The rescue of my mother	Doran Doran
7		15-19	Kim Sung-il's courage	Go through the story 2
8		22-26	Red Debt, Blue Debt	traditional stories
9		29-2	Park, Jun Won, How to see flowers	Go through the story 1
10	6	5-9	The longevity of red clothes descending from the sky	Go through the story 2
11		12-16	Rejuvenating spring water	traditional stories
12		19-23	Lunar and seo	traditional stories
13		26-30	Like a jar, filled with a drop of water	Go through the story 1

이야기할머니의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예시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Examples of 'Story of the Goblin' story

Introduction	
Greetings	• Belly hands! Greetings!
Last story Rewind	• Everyone! Do you remember the story of the "Young zelkova" that my grandmother told me? • Zelkova grasped grandfather's gratitude and returned him back. Story grandmother also tried to have gratitude to those who appreciate it. Did you say thank you to the thankful people? good job.
Share your story	• The story that grandmother will tell you today is the story of the "distracted goblin!" • Have you ever seen a goblin in a book or cartoon movie? What would you do if a goblin appears to you? • Let's cast a spell like a goblin, shall we? Come out of gold Come on!/ come out Come on! Wow! I order it well and I cry out well. The more powerful sound, the 'story comes out!' Shout? The story goes out! • Departing into the story of 'distracted-goblin!' • One, two, three, four!/ Start the story/ We all listen to it./ Is your ears ready to shine?/ one two three four!/ I will leave./ Bread!
deployment	
Tell a story	•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farmer who had no money, no land, no poverty. Because there is no money, I can not live the earth, and because I have no land, I can not grow my own farm. So this house, the house, the house, I helped the hard work, I barely lived. (skip)
Tell me what I think.	-Illustrations (※ voila out the picture!)-  • The poor farmer lent money to the goblin. The goblin came to pay the money the next day. • Why did the farmer lend money to the goblin because he was poor too? • What if you borrow something from your friends? • How did you feel when you realized that the goblin paid off the farmer's money? • What do you want to give to a friend you kindly asked me to do?
Wrap-up	
Wrap- up	• Forgetful goblin came everyday to farmer to pay his loan. Goblin was mad because he find out that he paid the loan that he already paid. The poo goblin throwed farmer's farm made the crops grow well. April 21st, next week is the day of science. So I'll prepare the story of Moosun Choi, the first inventor of gunpowder in Korea. • I have heard interesting stories and sing together. start! • One, two, three, four! I heard it well./ We all warmed up./ The ears are really good./ one two three four!/ See you again./ Bread!
Finishing	• Navel hand! Greetings! • Everyone! Next time I'll meet you again. Hi!

2.3. 검사도구

2.3.1 유아와의 공감능력 검사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할머니와 유아간의 공감능력은 Mehrabin과 Epstein의 정서공감척도, Davis가 제작한 IRI검사, Brayant가 제작한 정서공감척도를 박성희가 변안한 것을 참고하여 전병성이 재구성한 검사 도구를

를 사용하였다[30-34]. 이 척도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두 하위 요소를 포함하며 총 30문항이다.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 또는 관점을 취해 보려는 경향을 알아보는 관점 취하기, 허구적인 상황 속에서 느낌을 상상해보는 경향을 알아보는 상상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서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한 공감적 정서가 각성되는 경향을 알아보는 타인 지향적 공감과 타자 지향적인 동정을 느끼고 불행한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경향을 알아보는 개인적 고통정서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도구는 5단계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야기할머니의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와의 공감능력 평정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reliability test of empathy ability scale (inverted question is marked with *)

factor	question	question number	cronbach's α
cognitive empath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64
emotional empathy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5	.77
total	-	30	.84

*p < .05, **p < .01, ***p < .001

2.3.2 언어교수효능감 검사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할머니가 유아와의 언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Enochs, Smith와 Huiker가 개발한 MTEBI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를 수정·보완한 김정화, 이영애의 척도를 유아교육학 전문가 1인과 논의를 거쳐서 본 연구의 대상인 이야기할머니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35,36]. 이 척도는 개인 효능감과 결과기대감 두 하위 요소를 포함하여 총 18 문항이다. 개인효능감은 이야기할머니 자신이 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묻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과기대감은 교육이 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교육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 도구는 5점 Likert 척도

로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야기할머니의 언어교수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와의 언어교수효능감 평정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reliability test of language teaching efficacy scale

factor	question	question number	cronbach's a
personal efficacy	1-9	9	.87
results expected efficacy	10-18	9	.75
total	1-18	18	.86

2.4 연구절차

2.4.1 사전검사

신규교육자인 8기 이야기할머니를 대상으로 2017년 3월 6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의 각 지역에서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 활동 프로그램' 교육을 받기 전에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이야기할머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 2명이 교육기간 동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답변한 설문지는 현장에서 바로 회수하였으며, 최종 51부가 사용되었다.

2.4.2 본 연구

본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연구대상인 8기 이야기할머니들이 2017년 4월에서 6월까지 주 1회 총 13회의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 활동 프로그램'인 교육계획안을 바탕으로 이야기할머니가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 현장에서 실시하였다.

2.4.3 사후검사

상반기 이야기 활동을 끝낸 후 2017년 7월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에 걸쳐 하반기 심화과정 연수중인 8기 이야기할머니를 대상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답변한 설문지는 현장에서 바로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51명부가 사용되었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사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효과검증을 위해 두 변인에 대해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하는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야기할머니와 유아 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야기할머니와 유아 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Difference between pre-score and post-score on empathy ability with young children (N=51)

variable	pre-score		post-score		t
	M	SD	M	SD	
cognitive empathy	43.18	3.92	48.12	4.52	-5.98***
emotional empathy	46.98	3.17	47.90	4.01	-1.35
total	90.16	4.86	96.02	7.01	-4.81***

*** $p < .001$

Table 5와 같이, 이야기할머니들에게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가 전체 유아와의 공감능력 총점이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보다 유의한 차이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t=-4.81, p<.001$). 구체적으로, 인지적 공감능력은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 후의 점수가 적용하기 전보다 유의한 차이로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t=-5.98, p<.001$), 정서적 공감능력은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과 후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35, p >.05$).

3.2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야기할머니의 언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야기할머니의 언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Difference between pre-score and post-score on language teaching efficacy (N=51)

variable	pre-score		post-score		t
	M	SD	M	SD	
personal efficacy	32.92	4.80	35.96	3.93	-3.83***
results expected efficacy	34.39	2.68	36.53	3.98	-3.17**
total	67.32	6.57	72.49	6.87	-4.14***

p < .01, *p < .001

Table 6과 같이,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 후 전체 언어교수효능감 총점이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보다 유의한 차이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t=-4.14, p<.001$). 구체적으로, 개인효능감은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 후 점수가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보다 유의한 차이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t=-3.83, p<.001$), 결과기대효능감 역시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 후 점수가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보다 유의한 차이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t=-3.17, p<.0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와 유아 간의 공감능력 및 이야기할머니의 언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이야기할머니의 전체 유아와의 공감능력 및 유아와의 공감능력 각 하위영역을 비교한 결과,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정서적 공감능력 점수는 프로그램 실시 전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프로그램 실시 후의 전체 공감능력 점수와 인지적 공감능력 점수는 실시 전 점수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인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의미하며,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중심으로 실버세대가 참여한 스토리텔링 교육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19]. 또한, 교사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놀이 및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9].

특히, 이야기할머니는 대부분 손자, 손녀를 양육해본 유경험자가 많았고, 선발면접 시에 유아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질문에 적극적인 표현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선발되어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서적 공감능력이 있어 실시 전 점수보다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야기할머니들은 선발 이후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와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13주간의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으로 각 차시마다 도입, 전개, 마무리의 세부적인 계획을 설계했다. 옛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준 후, 유아들을 집중시키는 방법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등 유아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간접경험 및 모델링을 교육을 받았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을 통해 이야기할머니들이 타인의 관점이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공감능력이 더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이야기할머니의 전체 언어교수효능감 및 언어교수효능감 각 하위영역을 비교한 결과,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전체 언어교수효능감과 개인효능감 및 결과기대효능감은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나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한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12-14]. 또, 교사가 학습자의 성취 결과에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는 견해와 같은 맥락이다[15].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동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간접 경험의 기회도 마련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22]. 이는 이야기할머니들은 스스로가 유아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교수신념이 높아진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16].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는 이야기할머니들이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줌에 있어서 유아와의 공감능력과 언어교수효능감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야기할머니들의 언어교수효능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 실시한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은 이야기할머니들의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실제 수업에 적용되는 교수법을 위주로 구체화하여 제공되었으며 이러한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은 이야기할머니들의 성공적인 활동 및 언어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대상이 아닌 특수성이 있는 이야기할머니의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진행한 교육프로그램의 진행 절차를 따라야 해서 본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에 대한 처치는 가능하였으나 처치를 통제하는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이야기할머니인 비교집단에 대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전-후의 종속변인의 변화를 통해 순수하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심미적인 감성을 키워주는 무릎교육을 지향하는 이야기할머니들이 유아와의 인지적 공감능력 및 언어교수효능감을 높이는 결과를 도출한 점은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속된 강원·수도권, 전라·충청권, 경상권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을 하는 이야기할머니 8기 228명중 전라권, 강원권을 제외한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전체 이야기할머니 대상으로 일반화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체 인원의 이야기할머니를 대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야기할머니의 개개인의 교육기관의 사전활동 경력과 몇 곳의 유아교육기관을 배정받아 활동하는 횟수에 따른 개인변인에 따른 교수능력 차이에 관해 알 수 있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이야기할머니의 개인변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해서 대부분 유아교사에 대한 연구를 참고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와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주체와 객체여서 이야기할머니와의 정서적인 부분 활동에 있어 유사점이 있다. 하지만 이야기할머니는 교사가 아니고 매일 유아들을 만나지 않음으로 두 집단을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국학진흥원 사

업에 참여한 이야기할머니는 개인의 능력개발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부심과 삶의 자긍심 회복의 효과를 가져왔다[37].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유아교육기관에 적용한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사업은 정책기조의 변화 및 비용발생에 따른 예산 배정 문제 등에 따라 사업 범위가 확대, 축소되거나 일부 폐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교육적 효과들이 증명되는 연구들이 다수 뒷받침된다면 우수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시와 사업 확대의 필요성은 당연한 논리로 귀결될 것이다[22].

넷째, 본 연구는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야기할머니와 유아 간의 효과검증 방법으로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통제를 위한 비교집단 없이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종속변인 공감능력 및 언어교수효능감의 사전-사후 변화량만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야기할머니 대상이어서 개인적인 연구로 인해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통제집단의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거나 추후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집단별로 다른 이야기할머니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해 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야기할머니와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질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유아교육현장에서 선현들의 미담, 옛이야기, 전래이야기 등을 통한 이야기할머니들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더 확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효과적인 활동을 돕는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보완 및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야기할머니 활동의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고령화 사회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H. J. Moo, K. E. Kim, S. J. Seo, M. Y. Sung, J. H.

- Im, J. Y. Ha & J. J. Hyang. (2016). *Early childhood development*. Seoul : Changjisa.
- [2] G. J. Kim. (2004). *A research on the community of generations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and older people : Program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Han Seo University, Seosan.
- [3] H. S. Park, H. S. Eo & J. J Kim. (2014). Analysis on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of Volunteer Activities by Elderly Volunteers at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on Young Children’s Perception of the Senior. *Korea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4(3), 23-43.
- [4] J. O. Ha. (2004). A Qualitative Research of the Role and Image of an Elderly Volunteer in an Child Educare Center.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1(3), 1-26.
- [5] E. J. Heo. (2004). *The effects of intergenerational activities in the day care center*. The Graduate School of Won Kwang University, Iksan.
- [6] <http://www.koreastudy.or.kr>.
- [7] C. R. Rogers.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2), 95-103. DOI : 10.1037/h0045357
- [8] S. M. Lee. (2014). *An Analysis of Difference between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Empathy, Emotional states, Job Satisfaction*. The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Seoul.
- [9] Y. J. Hong. (2017).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ic Ability and Young Children’s Play Flow*. The Graduate School of Dongeui University, Busan.
- [10] M. G. Yun. (2015). *A Study on Empathy as Motivation of Prosocial Behaviors : Focusing on Theory of Empathy by Martin L. Hoffman*.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 [11] M. S. Choi.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icacy or Cognition of Professionalism and Teacher-Parent Communication Attitude of Child Care Center Teachers. *The Korea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0(3), 1-19.
- [12] M. G. Nam. & H. E. Hwang. (2001). Developmental Appropriate Practice : The Beliefs and Practices of Kindergarten Principals and Teac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3), 167-181.
- [13] E. N. Eom.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ing beliefs of the kindergarten teachers and the teaching efficacy of written language education and teaching practice of written language education. *Childcare Research*, 5(2), 69-86.
- [14] I. O. Jeon. (1998). The Effects of Teacher's Educational Belief System and Teaching Efficacy on Verbal and Non-verbal Teaching Behaviors with Young Children. *The Korea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9(1), 505-535.
- [15] H. J. Kim.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efficacy belief and interactions of teachers and children*. The Graduate School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 [16] M. O. Lee & N. Y. Choi. (2016). The Impact of Storytelling Grandmothers’ Story Delivery Capability and Language Teaching Efficacy on Their Interactions with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15(1), 75-99.
- [17] S. H. Lee. (2015). Study on Training and Activity Status of ‘Lovely Grandmother Storyteller’ to Activate Communication between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Reading Research*, 34, 9-36.
- [18] S. H. Kim. (2015). An aspect of story culture performance of communication and translation-Focusing on a storymama of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5(5), 53-69.
- [19] S. H. Jeon. (2014). *A study on the effect and impact of storytelling education participate in silver generation- Focusing on the ‘Story-telling Grandmother’ project*. The Graduate School of Hanshin University.
- [20] M. S. Kim & M. J. Kim. (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Grandmothers Storytelling Activity" on Children’s Personality and their Percep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7(1), 117-135.
- [21] J. Y. Lee. (2009). *Analysis of infant's perception of the elderly who participate in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programme and elderly participant's attitude to the programm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 [22] E. H. Lee, S. M. Lee, N. Y. Kim & J. S. Kim. (2018). The Effects of Story Mama Activity on Children’s Servant Leadership and their Perception of the Elderly. *Early Childhood Policy Research*, 12(1),

- 201-225.
- [23] M. R. Han, Y. H. Seo, W. J. Hur & J. T. Lim. (2007). Study of Actual Condition of Management of and Demand for Elderly·Child Interaction Program -Focus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in the Busan and Ulsan Reg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2), 67-92.
- [24] W. J. Heo, E. O. Ha, E. J. Kim, M. Jo, B. Y. Lim & H. I. Hwang. (2006). The Study of the Meaning and Effects on the Elderly-Children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Programs in Child Care Cent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0(4), 331-350.
- [25] S. L. Lee. (2016, April). The Practices and Meaning of Korean Traditional Story-telling by Grandmothers in Kindergarten. *The Korea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Conference* (pp. 182-184). Paju : GYOMOON.
- [26] I. Gye. (2013). *Through story : Life and wisdom of Sunhyun1*. Andong :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 [27] S. H. Kim. (2013). *Through story : Life and wisdom of Sunhyun2*. Andong :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 [28] J. E. Shim. (2013). *Through story : Life and wisdom of Sunhyun3*. Andong :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 [29] S. H. Kim. (2016). *Through story : Life and wisdom of Sunhyun4. E-book*. Andong :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 [30] A. Mehrabian & N. Epstei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4), 525-543.
DOI : 10.1111/j.1467-6494.1972.tb00078.x
- [31] M. H. Davis.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 in Psychology*, 10, 85.
- [32] B. Bryant.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DOI : 10.2307/1128984
- [33] S. H. Park. (1993). *An experimental study on empathy in relation to the altruistic behavior*.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34] B. S. Jeon.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The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35] L. G. Enochs, L. P. Smith & D. A. Huinker. (2000). Establishing factorial validity of the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beliefs instrument. *School Science and Mathematics*, 100(4), 194-202.
- [36] J. W. Kim & Y. A. Lee. (2011). Early Childhood Teacher' Teaching efficacy of Literatur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10(3), 135-155.
- [37]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7). *2017 Grandmother Business Overview*(Online). <http://www.mcst.go.kr>.

김형숙(Hyung-Sook Kim) [정회원]



- 2017년 2월 : 계명대학교 유아교육학과(박사수료)
- 2019년 11월 ~ 현재 : 김형숙문화창작소 대표
- 2015년 9월 ~ 현재 : 유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사회복지상담학부 강사

· 관심분야 : 창의·인성교육, 아동문학, 놀이지도
· E-mail: letkhs96@hanmail.net

홍명순(Myoung-sun Hong) [정회원]



- 2013년 2월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박사수료)
- 2012년 11월 ~ 현재 : 홍명순말글연구소 대표
- 2016년 7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글쓰기말하기센터 겸임교수

· 관심분야 : 말하기와 글쓰기, 스토리텔링, 인성교육, 아동문학
· E-mail: hms3939@hanmail.net

김래은(Rae-Eun Kim) [정회원]



- 2013년 8월 : 경성대학교 유아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6년 4월 ~ 현재 : 유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사회복지상담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영유아교수법, 아동문학, 유아언어교육
- E-mail: versus486@hanmail.net